

나주영산강축제 즐기고, 동구 충장축제서 또 만나고

나주 노안면, 동구 서남동 지역축제 상호 방문



지난 10일 '2026 충장축제' 현장을 방문해 성공적인 축제를 응원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과 동구 서남동이 지역축제를 통해 만남을 이어가며 자매결연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13일 나주시 노안면에 따르면 이수일 서남동장과 이형철 서남동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7일 '2026 나주영산강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방문단은 축제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나주의 문화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소연 노안면장과 이진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10일 동구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서남동 주민들과 다시 만남을 가졌다. 노안면

방문단은 서남동 퍼레이드 행렬에 직접 참여해 충장축제를 함께 즐기며 지역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이번 방문은 노안면과 서남동이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지역축제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 지역 주민들은 축제 현장에서 만나 서로의 지역문화를 공유하고 우의를 다지는 한편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정을 나눴다.

이진환 노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서남동과의 교류가 지역축제라는 즐거운 만남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뜻깊다"며 "서로의 축제와 지역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면서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직원 아이디어로 담양 알린다

담양군(군수 박종원) 직원들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담양 곳곳의 매력과 군정 소식을 영상으로 전하는 새로운 홍보 활동에 나선다.

군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홍보영상 제작 동아리를 운영한다.

직원들이 직접 소재를 발굴하고 기획부터 촬영·편집까지 참여해 담양의 다양한 이야기를 친근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팀은 담양의 관광명소와 축제, 문화, 농특산물, 군정 정책 등을 소재로 오는 12월까지 팀별 월 1편 이상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담양의 매력을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16일 개막

화순군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일원에서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꽃길 따라 만나는 천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펼쳐진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국화 등 가을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해 화순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가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수, 박관현 열사 44주기 추모

역사적 발자취 보존을 위해 '박관현열사 생가 정비사업' 추진 박차



영광군수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박관현 열사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2일 국립5·18민주묘지 내 '역사의 문' 앞에서 거행된 고(故) 박관현 열사 제44주기 추모식에 영광군수가 참석해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박관현기념재단의

주관으로 박 열사의 유가족을 비롯해 기념재단 관계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70여 명이 참석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위해 헌신한 열사의 삶을 되새겼다.

추모식에 참석한 영광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우리 영광이 낳은 박

관현 열사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다"라며, "열사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은 4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라고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박관현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영광군은 열사의 고향으로서 그의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하고 후세에 기억하기 위해 현재 '박관현 열사 생가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광군은 열사의 고향으로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해 '박관현 열사 생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사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전남광주 첫 장애인생활체육전, 15일 장성군에서 개막

14개 종목 경기 진행... 대회조직위, 분야별 막바지 준비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첫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장성군에서 열린다.

군에 따르면 '함께 뛰는 성장장성, 하나 되는 전남광주'라는 주제 아래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장성지역 주요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선수와 임원, 관람객 등 3000여 명의 발걸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에선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10개 정식종목과 다트, 조정 등 4개 화합종목 경기가 진행된다.

군은 현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선 7일에는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담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종목별 경기장 운영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운영, 교통 및 주차, 행사장 안전관리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제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장성군에서 열린다.

/장성군 제공

협조사항도 논의했다. 특히, 경기장 및 주변 시설의 접근성 확보와 편의시설 점검 등 장애인 선수단과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선수단 환영 분위기 조성고 숙박 및 음식점 고객 응대, 위생 관리, 주요 관광지 정비 등 손님맞이도 꼼꼼하게 준비한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인 만큼,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개최식은 황룡강변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김재섭 기자

